

난가고시 불신의 늪 신뢰회복이 필요

□ 정리/김동진 기자

1. 96년도 채란업 실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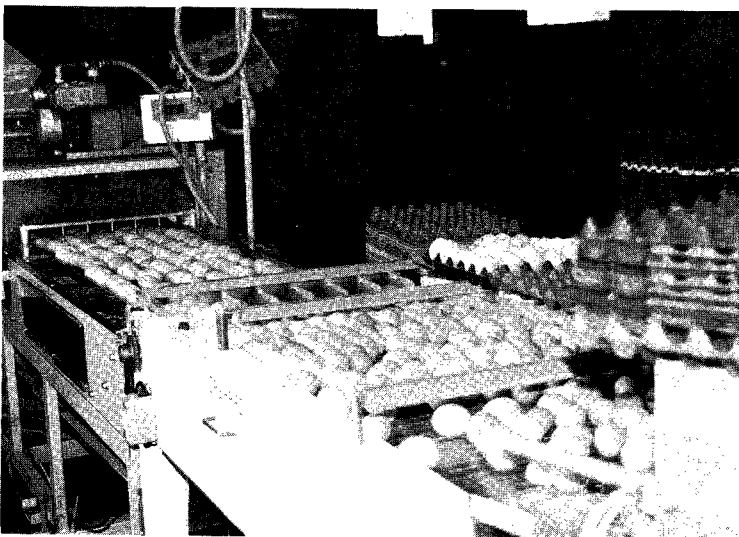
국내의 모든 산업이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원자재비 상승, 인건비 상승 등으로 생산비가 높아지고 예전처럼 이익을 얻어내기가 수월치 않다. 이것이 비단 국내 중소기업들이 겪는 어려움만은 아닐 것이다. 축산업중에서 중소기업으

로 치부할 만한 채란업계에도 실정은 마찬가지이다.

'96년도 한해의 채란업은 질병 급증, 사료비 인상, 계란 물량 과다, 소비부진, 난가현실화의 부작용이 끊임없이 나타나면서 생산자 고시가격과 농장 수취가격의 차이가 20원 이상까지 벌어 졌는가 하면 11월까지의 특란 평균 가격이

75원을 이룬 것과 대조적으로 실거래 가격은 평균 12원 낮은 평균 63원 이하로 거래되어 어려운 한해를 보내야만 했다. 그에 못지 않게 비상대책 회의, 상인들과의 수차례 협상 시도, 지역별 난가조절 위원 정보교환 등 채란업의 문제점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은 한해이기도 하다. 이에 대처키 위하여 난가현실화를 위한 다방면의 노력이 있어왔지만 노력 이상의 성과를 이루지 못하고 오히려 상인들에게 역이용 당했다는 비난만을 받아야 했다.

고난가가 지속될 때 한편에서는 불황이 싹트고 있었다는 것이 오늘 일만은 아니지만 생산성이 낮은 계군을 도태시켜야 함은 누구나 알고 있으면서도 돈을 벌기에 급급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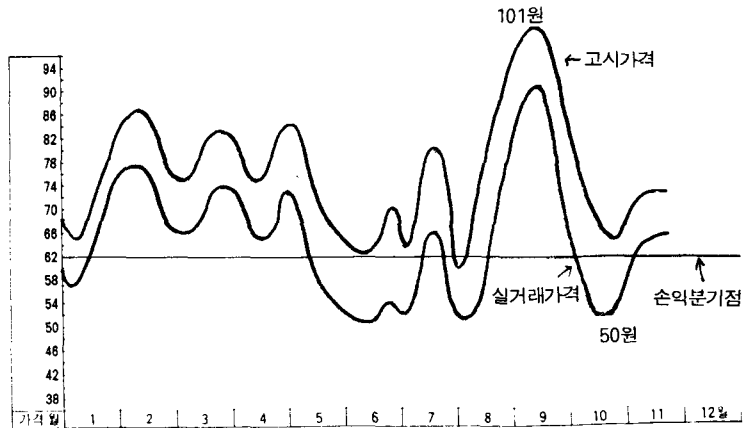


생산자들이 국소적인 면만을 보아왔던게 사실이다. 또한 사료비 상승으로 인한 생산원가 상승은 계획경영에서 점점 멀어져만 가고 있으며 어디부터 손을 대야할지 모르는 질병문제는 국내 전체를 오염지역으로 만들면서 심각성을 더해 주었다.

2. 생산자와 상인들의 이상 기류

1월 초반부터 농장 수취가격이 8원 이상 벌어지면서 고시가격의 공신력이 떨어질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현실로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상인들의 횡포, 후장기 성행 등과 함께 생산자들의 단합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그 심각성은 더해갔다. 생산자 측에서는 지난 4월 3일 신임 구천석 채란분과 위원장을 필두로 난가조절 체계를 바꾸고 혼돈속에 있는 난가의 현실화를 위한 새로운 작업에 돌입했다.

그러나 이러한 시점과 때를 같이해 상인연합회는 내부적인 갈등과 함께 마치 파벌게임을 방불케 하는 파워게임에 휩싸이면서 난가를 흐려놓기 시작하였다. 전국계란상인연합회로 명맥을 유지하며 생산



〈그림 1〉고시가격과 실거래 가격 추이(특란가격)

자들과 협상 테이블에 섰던 상인 단체가 수도권계란상인연합회, 서울경기계란유통협의회, 한국계란유통협의회로 파벌이 생기며 내부적인 갈등을 격어오다 결국 수도권계란상인연합회로 통합되어 그나마 생산자들과 대화의 시간을 갖게 되면서 다소의 안정을 찾고 있지만 기존의 체제를 탈피하지 못하였다는 아쉬움을 남겼다.

상인과의 만남은 공식적으로 2~3차례에 그쳤고 회의에서 도출된 합의 내용은 상인들의 일방적인 불이행으로 깨지기 일쑤였다.

3. 세차례에 걸친 난가현실화 조치

6월에 들면서 생산자 고시가격과 실거래 값에 있어 예

년에 없던 15원 이상의 DC폭을 기록하자 본회는 6월 28일 긴급 대책회의를 갖고 7월 1일자로 생산자 계란고시가격을 전 품목 8월을 내리면서 현실화 조치를 취하고 계란출고시 마다 계산서를 발급하고 대금결제는 거래당시 고시가격을 적용하기로 하였다. 이때 일부 생산자를 비롯하여 상인들 까지도 우왕좌왕하여 어리둥절 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사실 계란값의 현실화 조치에 대하여 6월부터 홍보는 했지만 그 기간이 너무 짧아 전 양계인에게 알리지 못한 것이 아쉬움으로 남았다.

결국 난가에 대한 현실화를 실시하여 다운폭을 상당량 줄이는데는 성공하였으나 홍보 부족과 상인들의 비협조로 결국 1달 이후에 DC폭이 오히

려 더높게 형성되어 단기적으로는 성공하였으나 장기적으로 실패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현실화 조치가 현실과 멀어지는 감이 오면서 8월 1일 사상 유래없는 12원을 한번에 인하시키는 또 한차례의 현실화 조치를 단행하여 특란이 59원을 기록하였다. 그러나 12일자로 다시 12원을 인상시켜 어려운 유통상황을 더욱 혼미하게 만들었고 상인들에게 이용당했다는 질책을 피하지 못하였다.

난가의 혼란이 전국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결국 전국난가 조절위원들이 10월 16일 만남을 갖고 실거래 가격과 고시가격이 큰 폭으로 벌어진 채 거래되고 있는 수도권지역의 난가를 바로 잡아야 각 지방의 난가가 안정을 찾을 수 있다는데 뜻을 같이하고 난가 하락시 같은 시점에 같은 폭으로 내릴 것을 합의함과 동시에 난가현실화를 위한 새로운 방안으로 상인들에게 적정마진을 보장하는 한도내에서 난가현실화에 접근하자는 의견이 모색되어 지방난가의 변동없이 서울경기 시세만 8원씩 내리는 조치를 취해 DC폭을 8원까지 좁히는데 일조를

했다는 평을 받기도 하였다.

4. 고가 병아리 지속

지난해에 입식된 산란종계는 총 430천수로 '94년 609천수에 비해 32.7%가 감소하였으며 평년보다도 낮게 나타났다. 이는 '94년도 혹서피해와 종계의 고질적인 생산성 저하가 종계입식에 영향을 주었으며 이로 인해 2월부터 병아리 가격이 고가를 유지하는데 영향을 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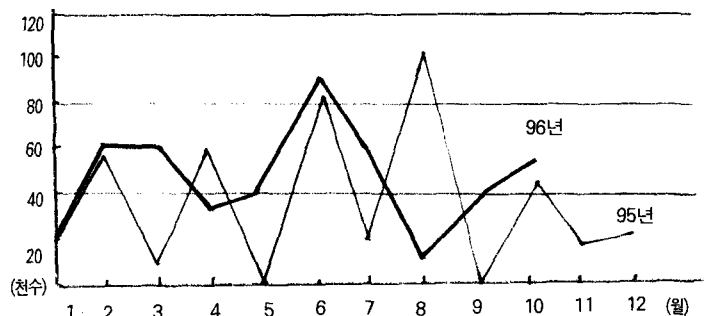
그러나 1/4분기에 영향을 미칠 '95년 2/4분기에 입식된 산란종계는 131,320수로 전년에 비해 무려 105%가 증가되어 봄병아리 과잉을 우려하기도 하였다.

예상과 같이 1월 평균 가격이 578원을 기록하였으나 병아리 가격이 상승세를 타면서 3월에는 850원의 초 강세를 보였으며 4월 병아리 수당 평

균가격은 844원을 기록하는 등 금년 말까지 고가 병아리 생산은 계속되었고 이는 지난해 600원시세 보다 평균 150원이 높은 750원(11월까지 평균)에 형성되었다.

병아리 가격의 호황은 오히려 생산자들의 부담만 크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사료가격 인상의 이유로 4월 난가가 84원까지 급등 되자 해마다 5월 초부터 적극적으로 이루어 졌던 노계도태가 지연되어 곧바로 계란 수급 불균형이 나타나 고시가격만 높였을 뿐 실제 농가 수취가격은 15원 이하로 떨어지는 현실을 겪어야만 했다.

하절기 산란실용계 생산에 영향을 미칠 4/4분기에 입식된 산란종계는 83,150수로 전년에 비해 42%가 감소된 반면 가을 철에 영향을 미칠 '96년 1/4분기에 입식된 종계



〈그림2〉산란종계 입식현황

는 143,500수로 무려 80.3%가 증가되어 병아리 가격을 부추겼으며 더욱이 2/4분기에 입식된 종계는 164,400수로 1/4분기 보다 더 늘어나 '97년도 초의 병아리 가격 상승이 불가피 할 것으로 나타났고 늦봄부터 계란생산량이 대폭 늘 것으로 예상되어 병아리 가격의 고가 유지는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5. 허울 좋은 101원

7~8월에 고온다습한 기후, 열대야 현상이 장기간 지속된 결과 난중이 전반적으로 가벼워져 큰알중심으로 생산량이 대폭 감소되면서 계란값이 급등되는 현상을 초래하였다. 두달에 걸쳐 특란이 무려 37원 인상된 101원에 고시되어 9월 6일부터 20일까지 장기간 형성되었다. 그러나 예년의 경우처럼 하락세가 장기화될 때라면 몰라도 사상 최고시세로 올라가고 있는 도중에도 난가가 이중 시세로 벌어졌다는 것은 농가의 단합이 안된 결과로 볼 수 있다.

이후 10월 들면서 기온이 낮아지고 질병에 의한 피해는 감소되었고, 특히 윤달로 접어들면서 소비둔화가 현격히

나타나 특란값은 네차례에 걸쳐 14원이 내렸다. 실거래 가격은 상승시에 비해 더욱 벌어져 DC폭이 20원을 넘어서는 사상 최악의 어려움에 직면하였다. 이로 인해 고시가격의 공신력이 실추되었으며 고난가 형성으로 노계도태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난가하락의 주범으로 작용하였는가 하면 계란 생산잠재력에 비해 훨씬 많은 양의 계란이 생산되고 계란값이 약세를 보이자 생산성이 낮은 계군을 중심으로 일시에 많은 물량의 노계가 쏟아져 나와 처리를 못하는 결과가 초래하는 악순환을 반복하였다.

6. 높아진 난좌 가격

종이 난좌가 '94년 9월 21일부터 농장에 보급이 확산되면서 좋은 반응을 보였으나 종이난좌 제작회사가 원가 및 유통비용 상승 등 경제적인 어려움을 들어 본회와 협의후 결정하기로 한 가격 인상을 일방적으로 상향조정함에 따라 년 초에 개당 45원하던 난좌가격이 9월부터 60원에 거래되면서 55원에 거래되는 플라스틱난좌 보다 높아 일부 생산자들이 종이난좌를 기피

하는 현상까지도 벌어지고 있다. 또한 유통상인들이 플라스틱 난좌를 선호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심지어 구멍가게에서도 플라스틱 난좌가 종이난좌보다 계란이 돋보인다는 이유를 들어 종이난좌 사용을 꺼려하는데도 원인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여러곳에서 종이난좌 회사들이 업에 뛰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생산자들은 가격 인하에 기대를 걸고 있으나 그런 업체 역시 원가가 현재보다 더 높게 형성되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난좌가격에 대한 줄다리기는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7. 벼랑에 선 질병대책

1월 초 호흡기성 질병이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계란생산성이 큰폭으로 낮아짐에 따라 상승세로 접어든 계란값은 4월까지 상당기간 지속되었다.

각종질병으로 인해 산란율이 대폭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나며 30~40% 산란율이 낮아 생산성에 막대한 피해를 가져왔음은 비단 올해만 겪은 현상은 아니다. 그러나 지난 '89년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법정전염병인 뉴캐슬병이 발

전되는데 이어 올초 가금인플루엔자가 국내에서는 2번째로 법정전염병으로 살처분하는 사건이 벌어지자 종계 뿐만 아닌 산란 농장에 까지 파급 효과를 주면서 불안에 떨었고 날씨가 풀리면서 다소 소강상태를 보이던 가금티푸스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생산농가에게 큰 복병으로 떠오르게 되었다.

근 3년동안 채란농장을 엄습해온 가금티푸스와 그밖의 질병들이 견잡을 수 없이 확산되면서 생산성을 떨어뜨리는 주범으로 작용한 한해였다. 오히려 농가자체에서 질병을 알리지 않아 확산되기 시작한 가금티푸스는 질병 청정지역이라는 산간지대를 덮는다면 바다를 건너 제주도에게까지도 상륙하여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불명예를 씻을 수 없게 되었다.

8. 안전성 문제

‘고름우유’란 새로운 단어가 마스크를 타면서 유가공업계에 엄청난 피해를 초래하였고 이를 시발점으로 축산물에 대한 정밀검사가 현실로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지난 1월 소비자 단체와 마스크에서 축

산물에 대한 정밀검사를 서울시 보건환경원에 의뢰한 것이다. 계란의 경우 4건에 120개의 샘플을 무작위로 채취하여 항생물질 5종을 비롯 부루셀라, 살모넬라, 결핵균 등의 검출여부를 의뢰하였다. 다행히도(?) 협회를 위시한 업계에서 노력한 결과 마스크에는 보도가 되지 않았지만 차후 문제제기의 불씨를 언제든지 남겨 놓고 있는 상태이다. 국민보건상 소비자들에게 안전식품을 공급하기 위하여 질 좋은 계란을 생산하는 것은 생산자들의 의무이다. 만약 계란에서 항생물질이 검출되었다는 보도가 전해질 경우 채란업계에 미칠 여파는 심각하기 때문에 항상 마음을 놓아서는 안될 것이다.

9. 결론

산란계 농장은 이제 점점 대형화 추세가 정착되어가고 있으며 그만큼 질병 등 피해에 대한 부담도 커져만 가고 있다. 한해를 돌아볼 때 가장 시급한 당면문제는 질병문제와 유통문제이다. 질병문제는 생산자들만 힘을 기울여서는 안될 범국가적인 문제로 대두되었다. 일전에 닭고기 살모

넬라 문제만 하더라도 가장 핵심이 되어 질병퇴치에 앞장 서야할 정부 기관에서 어처구니 없는 자료유출로 생산자들에게 비난을 받은 적이 있듯이 정부기관에서는 생산자들에게 질병퇴치를 위한 지침과 방향을 올바르게 내릴 수 있도록 이끌어갈 의무가 있는 것이다.

난가의 유통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인들 주도의 유통량을 생산자들이 담당하는 즉 현재 20%선에 머물고 있는 집하장의 물량을 충분히 늘려 50%선에 가깝게 건립하는 방법이 가장 큰 당면과제라 하겠다. 난가고시에 있어서는 생산자들과 상인들이 공동으로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외국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특유의 난가고시제도를 살려 생산자들에게 설득력 있는 난가고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기울여야 하겠다.

난가는 어쩔 수 없는 수요와 공급의 원칙을 따르기 마련이다. 따라서 생산자들은 생산 물량 조절을 우선적으로 하고 나머지 당면문제를 풀어 나가는 방향으로 '97년을 맞이했으면 하는 바램이다. **양계**